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26

인디아 브리핑

단기 조정 속 유효한 인도 내수 성장 스토리

Summary

지난 2주간(2026년 1월 9일~1월 23일) 인도 증시는 '초반 관망-중반 변동성 확대-후반 조정 심화'의 흐름을 보이며 2.5% 하락하였다. 연초 이후 유지되던 안정적인 투자 심리는 FY3Q26 기업 실적이 FY2Q26만큼의 서프라이즈를 제공하지 못한 가운데, 인도 루피화의 단기 약세와 아다니 그룹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점차 약화되었다.

섹터별로 보면,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FY3Q26 실적에서 낮아진 시장 기대치는 충족하였으나, 업황 전반의 의미 있는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주요 민간 은행인 HDFC은행과 ICICI은행 역시 대출 및 예금 성장률, 순이자마진(NIM)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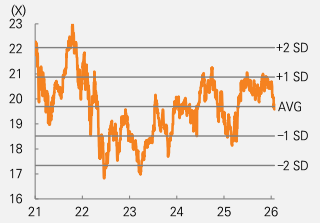
소비재 섹터에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유통 부문의 일시적 비용 증가와 퀵커머스 부문 투자 확대, 주요 축제 수요의 2분기 선반영 영향으로 FY3Q26 유통 매출이 부진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였다. 반면, 경기 민감재 성격의 온라인 음식배달 및 퀵커머스 1위 기업들은 경쟁 심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효율성 개선, 상품 믹스 고도화, 인벤토리 기반 1P 모델 전환 효과에 힘입어 퀵커머스 사업부문에서 일시적인 턴어라운드를 시현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1월 23일에는 아다니 그룹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실적이나 펀더멘털 변화와 무관한 과거 법적 이슈가 재부각되며 5~11% 급락하였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아다니 포츠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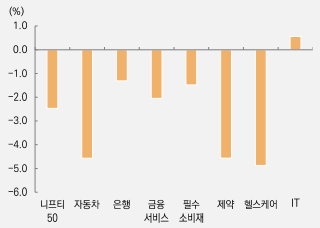
향후 인도 증시의 초점은 2월 1일 발표 예정인 인도 정부의 연방 예산(Union Budget)과 자동차 업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맞춰질 전망이다. 관세 불확실성과 개별 기업 실적이 맞물리며 단기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내수 중심 업종의 펀더멘털 개선이 시장 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Nifty 5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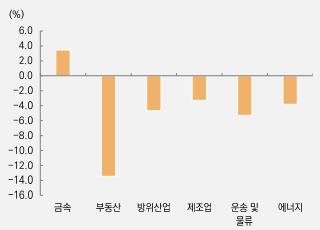
Nifty 50 밴드 차트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표 1. 인도 주요 지수 수익률

지수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Nifty50	-2.5	-2.5	-4.3	-3.3	-0.7	7.9	38.2	74.3
Nifty Next 50	-3.8	-3.3	-4.1	-4.6	-3.1	4.3	58.0	98.7
Nifty Midcap 50	-4.7	-4.4	-6.0	-2.7	-2.1	8.9	86.0	161.8
Nifty Midcap 100	-4.5	-4.4	-6.0	-3.7	-3.6	5.6	82.7	163.8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분석

인포시스 (INFO IN, Not Rated): 시장 기대 부합한 분기, 수요 환경은 일부 영역 중심 개선

인포시스의 FY3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 8%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주 잔고(order book)는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2건의 메가딜 수주에 기인한다.

경영진은 금융서비스와 에너지·유틸리티 사업 부문에서 수요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FY27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코멘트는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발표한 타타 컨설턴시(TCS)와 HCL의 입장과 대체로 유사하나, 세 회사 중에서는 인포시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톤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경영진은 수요 회복은 아직 전 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일부 영역에 국한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인포시스는 금융(BFSI)과 유럽 지역 사업에서의 고객 지출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그 외 사업 부문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추가적인 수요 악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대형 인도 IT 기업 3곳의 실적 발표 이후, FY27년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매출 성장률이 FY26년 대비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다만 회복의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시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포시스와 HCL은 일부 영역에서 타타 컨설턴시(TCS) 대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CS (TCS IN, Not Rated): 실적은 무난, AI는 PoC를 넘어 상용화 단계 진입

타타 컨설턴시의 FY3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9%, 7.9%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다만 환율 효과를 제외한 달러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해, 해외 수요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수주 잔고는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하며 다소 약한 흐름을 보였으나, 금융(BFSI) 부문의 수주 규모는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는 핵심 고객군을 중심으로 한 IT 투자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타타 컨설턴시는 이번 분기부터 AI 관련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연환산 기준 AI 매출은 18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전분기 대비 17.3%(환율 효과 배제 기준) 성장하였다. 경영진은 AI가 과거처럼 소규모 시험 적용이나 효과 검증 단계(POC, Proof of Concept)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와 시스템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도입으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나 계약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FC은행 (HDFCB IN, Not Rated): 컨센서스 범위 내 무난한 분기

HDFC은행은 FY3Q26 당기순이익 1,870억 루피(+11% YoY)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이는 영업이익(PPOP)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대손비용이 추정치 대비 낮게 나타난 데 기인한다.

순이자마진(NIM)은 예금 조달금리 하락과 일부 지급준비율(CRR) 인하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8bp 확대된 3.4%를 기록하였다.

예금 측면에서는 순이자마진(NIM) 개선을 위해 도매성 예금 성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예금 성장률이 과거 수분기 동안의 15~16% 수준에서 YoY 기준 12%로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예금비율(LDR)은 99%까지 상승했으나, 경영진은 향후 점진적인 하락 경로를 예상하고 있으며 성장의 제약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대출 성장률은 FY2Q26의 전년 대비 10% 성장에서 FY3Q26에는 12%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법인 대출 성장 가속에 주로 기인한다. 소매 및 중소기업(SME) 부문의 성장률 또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한편, 경영진은 FY27 기준 산업 전체 신용 성장률을 12~1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ICICI은행 (ICICIBC IN, Not Rated): 일회성 조정 반영된 분기 실적

인도중앙은행(RBI)의 요구에 따른 농업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과 신규 노동법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ICICI은행의 FY3Q26 당기순이익은 1,130억 루피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고, 시장 기대치를 5~7% 하회하였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비용 증가 요인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분기 대출 성장률은 FY2Q26의 전년 대비 10%에서 12%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법인 대출(6% YoY, 전분기 3% YoY)과 주택담보대출(11% YoY, 전분기 10% YoY) 성장에 힘입은 결과이다. 법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상품군이나, 정기예금 재가격 효과에 따라 전체 순이자마진(NIM)은 경영진 가이던스 수준인 4.3%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한편, 개인신용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에 그쳤고, 신용카드 잔액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다. 이는 이른 축제 시즌 이후 카드 자산이 축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예금은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시스템 평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이사회는 2026년 10월에 종료 예정이던 산딥 바크시(Sandeep Bakhshi) CEO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승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핵심 오버행 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RELIANCE IN, 매수): 부진한 FY3Q26, FY4Q26 회복 기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FY3Q26 연결 EBITDA는 전년 대비 4.9% 증가에 그치며 시장 기대치를 4.6% 하회하였다. 통신 부문은 ARPU 상승과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4% 성장했고, 에너지 부문 역시 정제 마진 개선으로 약 7%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유통 부문은 주요 축제 수요가 2분기에 선반영되면서 3분기 매출 성장률이 9.2%로 둔화되었고, 퀵커머스 등 신규 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EBITDA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여기에 기타 부문 비용 증가로 기타 EBITDA가 전년 대비 40.1% 감소하며 전체 실적 부진을 주도하였다. 기타 부문을 제외할 경우, 연결 EBITDA는 전년 대비 약 9.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FY4Q26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 효과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연결 EBITDA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부문 EBITDA는 15% 성장하고, 통신 부문 역시 요금 인상과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약 16% 성장이 기대된다.

당사는 유통 및 기타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지난 1월 19일 FY26~FY27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6.8%, 5.9%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별 가치 합산(Sum-of-the-parts)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주가 역시 기존 2,020루피에서 1,890루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터널(ETERNAL IN, 매수): FY3Q26 실적 리뷰—예상을 상회한 퀵커머스 실적

이터널의 FY3Q26 EBITDA는 퀵커머스 부문의 예상 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6.8억 루피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2%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당초 퀵커머스 부문은 경쟁 심화로 10~20억 루피 수준의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0.4억 루피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급망 효율성 개선, 상품 믹스 고도화, 인벤토리 기반 1P 모델 전환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경영진은 현재까지 추가적인 경쟁 압박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측면에서는 퀵커머스 부문이 순주문금액(NOV, +120.9% YoY)과 월간 평균 이용자 수(MTU, +122.6% YoY)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온라인 음식 배달 부문 역시 MTU 증가(+21.5% YoY)를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한편 인도 2위 퀵커머스 업체인 스위기는 지난해 12월 1,000억 루피 규모의 자본 조달을 완료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이터널의 유상증자와 스위기의 IPO 이후 퀵커머스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2025년 상반기에는 단기적인 경쟁 강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에 긍정적이나, 단기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 주가는 이러한 단기 경쟁 심화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로, 관련 리스크는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과 시장 내 경쟁 우위,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감안할 때, 동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SEC 이슈 재부각에 따른 아다니 그룹 주가 변동성 확대

2026년 1월 23일 아다니 그룹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5~11% 급락하였다. 이번 주가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실적이나 사업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라, 과거 제기되었던 아다니 그룹 관련 법적 의혹이 다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사안이었으나,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절차적 움직임이 재개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인식이 확대되었다.

2024년 11월 20일(미국 현지 시간) 당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아다니 그룹 회장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와 아다니 그린 에너지(Adani Green Energy) 관련 임원들을 증권사기 및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동일한 사안을 민사적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해 인도 정부를 통해 아다니 그룹 핵심 인물들에게 소환장 발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절차적·법적 사유를 들어 해당 소환장 전달을 거절하였고,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미국 법원에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 이 같은 사실이 1월 2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시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SEC 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부정적 변수로 선반영하였다.

만약 미국 법원이 SEC의 요청을 허가해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아다니 그룹 회장 및 아다니 그린 에너지 관련 임원들에 대한 법적 판단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제재는 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상되는 벌금 규모 역시 아다니 그린 에너지의 기업가치나 아다니 그룹 전체 재무 구조를 감안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채권 발행이 일시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는 인도 국내 채권 발행이나 은행 차입을 통해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가 급락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아다니 포츠(ADANIPORT IN)의 경우, 과도한 주가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다니 포츠는 인도 최대 규모의 민간 항만 및 물류 네트워크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구조와 빠른 화물 처리 시간을 바탕으로 시장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인도 1위 민간 항만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단기 조정은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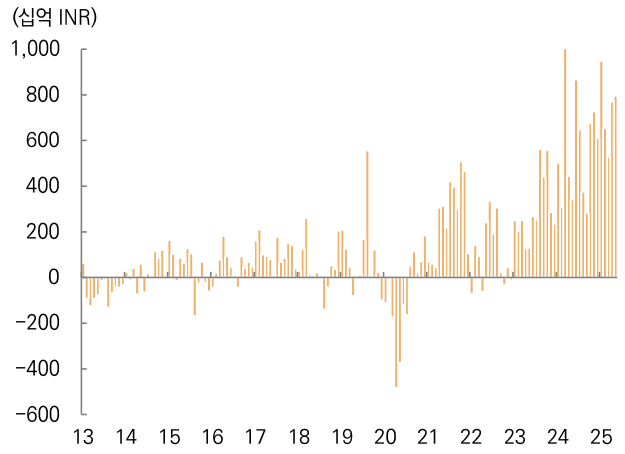
인도 주요 데이터

표 2.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3.1	-2.8	-3.5	-4.1	2.6	4.9	-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4.0	-4.1	-1.0	-3.7	8.4	10.9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6.8	-6.0	-6.4	-9.6	1.7	3.0	63.9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3.5	-3.1	-3.5	-4.3	2.2	4.5	-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3.3	-2.7	-1.5	-2.1	0.4	-9.4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7.1	-6.1	-6.8	-10.0	-0.6	-0.2	-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5.2	-5.2	-5.1	-4.9	-0.7	-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4.2	-3.8	-3.6	-5.7	1.3	-3.6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4.9	-6.4	-5.5	-13.1	-4.1	-7.7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3.5	-2.6	-3.5	-4.6	1.2	3.1	35.5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3.7	-4.5	-6.0	-5.4	-1.8	-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5.9	-6.1	-7.8	-11.9	-8.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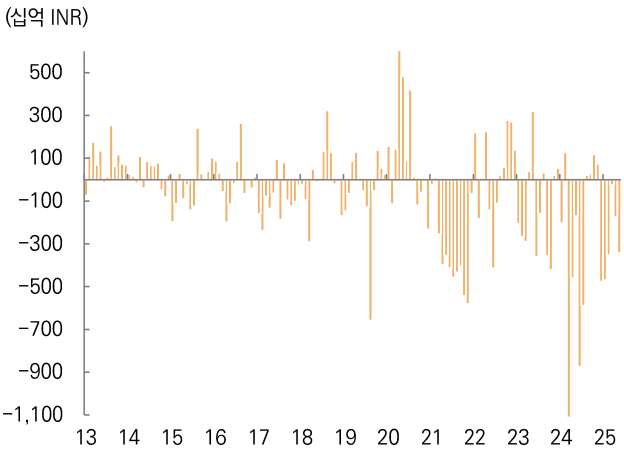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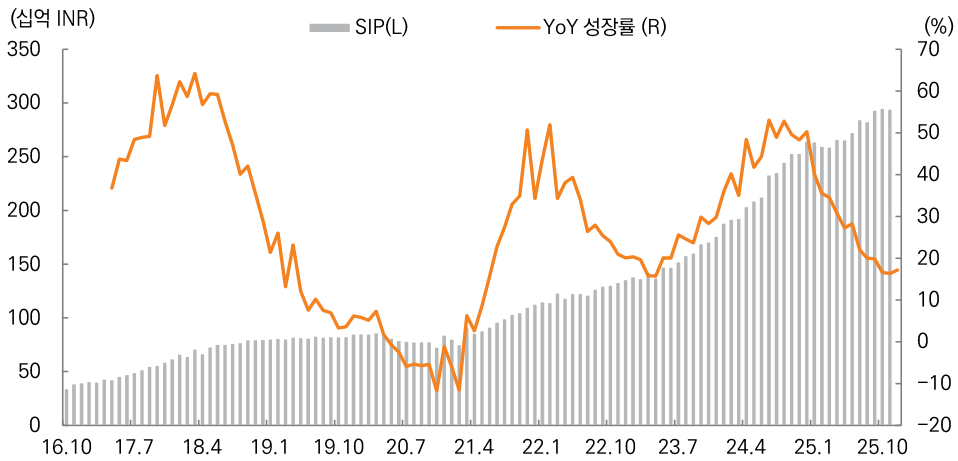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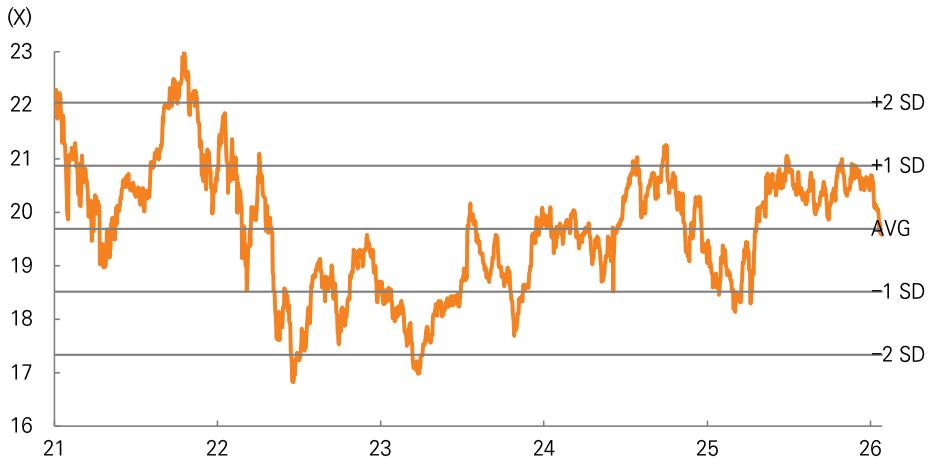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IP 적립식 펀드 월 단위 유입액 추이



자료: AMF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Nifty 50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Nifty 50 주요 기업 수익률*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INR)	지수 비중(%)	2주간 수익률 (%)	투자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Reliance Industries Ltd	18,758	9.3	-6.0	-4.9	-11.8	-4.5	0.0	11.7	25.2
HDFC Bank Ltd	14,094	7.0	-2.4	-1.6	-8.1	-7.9	-8.6	12.5	9.5
Bharti Airtel Ltd	11,938	5.9	-2.1	-1.6	-6.5	-2.2	2.4	21.7	156.9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11,442	5.7	-1.4	-1.4	-4.5	5.1	3.0	-21.2	-7.4
ICICI Bank Ltd	9,609	4.8	-4.3	-4.8	-1.4	-2.5	-8.3	12.0	54.1
State Bank of India	9,503	4.7	2.9	-1.2	5.9	13.8	27.6	41.1	71.5
Bajaj Finance Ltd	5,774	2.9	-3.3	-2.4	-8.3	-14.9	1.5	25.5	58.3
Infosys Ltd	6,942	3.5	3.5	-1.1	0.1	11.2	11.9	-8.3	7.9
Hindustan Unilever Ltd	5,661	2.8	1.6	2.1	4.6	-2.0	2.1	5.3	-5.7
Larsen & Toubro Ltd	5,150	2.6	-7.0	-2.9	-7.8	-4.1	8.7	9.3	67.6
ITC Ltd	4,052	2.0	-4.1	-1.8	-20.6	-22.4	-21.0	-24.2	1.2
Maruti Suzuki India Ltd	4,863	2.4	-6.3	-2.5	-6.7	-4.9	26.1	30.7	83.8
Mahindra & Mahindra Ltd	4,406	2.2	-3.6	-3.1	-2.3	-2.3	9.1	27.5	166.7
Kotak Mahindra Bank Ltd	4,205	2.1	-0.6	1.1	-2.3	-3.3	-0.5	12.2	18.5
HCL Technologies Ltd	4,632	2.3	2.7	0.5	1.6	12.8	16.3	-1.5	52.2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3,915	1.9	-5.7	-2.2	-7.1	-3.9	-3.9	-9.6	55.5
Axis Bank Ltd	3,906	1.9	-1.1	-2.8	2.7	1.3	15.8	32.7	34.9
UltraTech Cement Ltd	3,645	1.8	3.6	-0.1	5.9	3.8	1.0	10.3	80.6
Bajaj Finserv Ltd	3,114	1.5	-2.2	-2.7	-4.8	-9.7	-1.9	12.8	46.2
Titan Company Ltd	3,570	1.8	-4.3	-4.2	2.4	8.3	16.1	18.6	70.1
NTPC Ltd	3,265	1.6	0.2	-2.8	4.2	0.0	2.9	6.8	101.8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Ltd	3,088	1.5	4.9	-0.7	4.2	-1.4	5.2	0.5	61.1
Eternal Ltd	2,497	1.2	-9.0	-10.1	-9.0	-20.8	-16.7	20.0	407.3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 Ltd	3,015	1.5	-8.9	-8.0	-12.4	-8.4	-6.3	20.2	70.1
Bharat Electronics Ltd	3,002	1.5	-1.9	0.1	2.8	-2.7	4.2	53.2	304.4
Adani Enterprises Ltd	2,410	1.2	-13.4	-13.6	-17.1	-25.6	-26.9	-19.4	-45.8
JSW Steel Ltd	2,861	1.4	1.0	-1.5	6.7	2.5	13.9	25.8	59.4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td	2,364	1.2	-1.5	-1.2	-4.8	-10.4	-11.1	-11.2	50.5
Wipro Ltd	2,500	1.2	-9.0	-10.9	-12.2	-1.9	-6.2	-22.5	17.1
Bajaj Auto Ltd	2,631	1.3	-1.6	-0.8	3.5	3.7	16.6	14.9	159.8
Nestle India Ltd	2,495	1.2	-0.4	-1.7	3.0	0.9	13.8	18.4	33.6
Coal India Ltd	2,578	1.3	0.0	-2.9	4.5	9.1	16.1	17.0	81.8
Asian Paints Ltd	2,593	1.3	-4.3	-1.9	-3.7	8.2	15.9	20.8	-2.9
InterGlobe Aviation Ltd	1,819	0.9	-2.9	-0.7	-8.8	-18.6	-18.8	13.2	121.7
Tata Steel Ltd	2,342	1.2	5.2	-0.3	9.8	7.5	16.2	47.9	53.8
Jio Financial Services Ltd	1,607	0.8	-12.0	-9.3	-15.3	-17.3	-18.6	3.6	-
Grasim Industries Ltd	1,878	0.9	-0.6	-1.8	-2.5	-2.9	2.2	11.2	69.8
Eicher Motors Ltd	1,913	1.0	-7.1	-4.7	-4.5	1.9	30.0	35.6	117.7
Hindalco Industries Ltd	2,110	1.0	5.5	1.7	10.0	15.3	38.1	57.7	92.3
SBI Life Insurance Company Ltd	2,008	1.0	-3.3	-3.8	-1.1	8.8	9.3	39.3	54.6

주: 지수 비중이 높은 순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